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농업정책

◆ 농업 부문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 간부의 현지이해

김정은의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로동신문 2017.09.21.)

- 김정은은 과수의 주요 생산지인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였음.
 -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개간하고 질 좋은 흙보산 비료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매 과일나무마다 시비하였으며 해안연선 60여리 구간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였음.
 -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농약 생산 공정을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각종 농약들을 연구생산하여 가뭄과 고온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 수확고를 2.5배, 특히 사과는 5.8배로 늘렸음. 과수원의 생산량은 그루당 200~300알이며, 정보당 70~80톤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은 과수연구소를 방문하였음. 과수연구소에는 분석실, 정보실, 전자열람실 등이 있음.
 - 김정은은 과학과수의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좋은 과일 품종을 늘릴 것에 대한 문제, 지력을 높이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에 대한 문제, 과일의 독특한 맛을 살리며 과일 가공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문제,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돼지목장들의 운영을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 방울식관수체계를 완비하며 지대적 특성에 맞는 자연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여 필요한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과일 운반용 운전기재와 지게차,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들을 더욱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방풍림을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음.

박봉주총리 온천군, 증산군의 영농실태 이해(조선중앙통신 2017.07.04.)

- 박봉주가 온천군, 증산군의 가뭄 피해막이정형과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이해하였음.
- 온천군과 증산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가뭄 피해를 막고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하여 나가고 있음.
- 박봉주는 온천군 송현협동농장과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면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가뭄 피해막이작업과 농작물 비배관리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가뭄과 비바람 피해를 철저히 막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장점을 최대한 발양시키며 간석지 농사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능률높은 농기계를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박봉주총리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이해(조선중앙통신 2017.08.07.)

- 박봉주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봉화화학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돌아보면서 생산 정형과 기술장비 상태를 이해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작업을 적극 고무해주었음.
- 박봉주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염주군 룡북협동농장의 농사실태와 우렁이 유기농법 도입정형을 이해하고 당의 뜻을 받들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음.
- 해당 단위에서는 관계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되었음. 협의회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요구에 맞게 경영 전략을 바로세우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적시에 원만히 보장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박봉주동지 세포지구 축산기지운영 실태 현지이해(조선중앙통신 2017.09.27.)

- 박봉주가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운영 실태를 현지에서 이해하였음.
 - 박봉주는 애국소목장과 양목장, 젖소목장, 고기가공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유가공제품을 안겨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고무 해주었음.

◆ 과학영농

다수확실현의 열쇠를 확고히 틀어쥐고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에서
(로동신문 2017.07.04.)

- 최근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고농도 린, 칼리 복합영양액이 농작물의 생육 촉진과 소출 증대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여 많은 단위에 도입되고 있으며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음.
- 선진기술이 도입된 고농도 린, 칼리 복합영양액에는 고농도의 린, 칼리를 비롯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다량 및 미량 원소와 광합성 촉진 물질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복합영양액을 도입한 농업부문 일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린영양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강냉이는 그것으로 종자 처리만 하여도 정보당 소출을 500-1,000kg 이상 더 낼 수 있었다고 함.
 - 도입 후부터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 작물과 남새 작물의 광합성 속도와 생리적 기능이 높아지고 가뭄과 낮은 온도, 염기를 비롯한 불리한 환경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어 작물들의 생육이 촉진되고 소출이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이었음.
- 가뭄이 지속되는 올해의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이 복합영양액으로 처리한 농작물들은 그 영향을 적게 받고 있었음.
 - 재령군의 한 일꾼은 작물의 광합성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장마철 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장마철 광합성 강화제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하였음.
 -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벼, 강냉이, 콩 등 각이한 농작물들에 도입해본 것에 의하면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많이 내리면서 생육이 크게 촉진되었으며 이삭이 빨리 여무는 등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었음. 새로운 복합영양액은 빠른 속도로 전국도처에 일반화되고 있음.

현실에서 은을 내는 연구성과들(로동신문 2017.07.04.)

-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무기류황제농약인 다류화칼륨이 과일 생산에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 있음.
- 박사 부교수 김지섭을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지난 시기 이용되던 석회류황합제를 만드는 것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탄산칼륨을 이용하여 석회류황합제와 효과가 대등한 새로운 무기류황제농약인 다류화칼륨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게 되었음.
 - 탄산칼륨수용액을 이용하여 이 무기류황제농약을 만들면 석회류황합제를 만들 때보다 많은 류황을 절약하면서도 연료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함.
 -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전국의 여러 과수농장들과 과수원들에 다류화칼륨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한 구제 효과를 판정한 것에 의하면 평균 구제율이 90%이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

- 락원지도국 락원련운기술교류사에서 개발한 폴리브덴 식물 활성 강화제가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것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 한동숙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20여년 간에 걸치는 연구사업과정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폴리브덴 화합물의 구조와 제조 방법을 새롭게 밝혔으며 폴리브덴 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할 수 있는 공정도 과학기술적으로 확립하였음.
 - 폴리브덴 식물 활성 강화제를 도입한 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식물 활성 강화제는 식물의 발아율을 훨씬 높이고 뿌리 활성을 강화하며 광합성을 촉진시켜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당 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함. 또한 냉습과 가뭄, 염기를 극복하는 힘을 강하게 한다고 함.
 - 이 연구성과는 2016년 7월 특허로 등록되었음.

잣나무림 조성 기술 완성, 각지에 도입 -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로동신문 2017.07.19.)

-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또 하나의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음.
 - 종전보다 잣 생산 시기를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수확량을 부쩍 늘릴 수 있는 우리 식의 잣 나무림 조성 기술을 완성하고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음.
 - 우량 품종의 잣나무 밀식림 조성 기술은 실생잣나무림에서보다 잣 생산 시기를 8-10년정도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7배 이상의 수확량을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음.
- 산림토지를 경영목적에 따라 보다 지속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과학적 성과임. 우량 품종들의 키가 일반잣나무들에 비하여 훨씬 작다는 것과 필요한 시기에는 솎음베기를 하여 잣과 목재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한 측면임.

전국농기계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7.07.27.)

- 전국농기계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5일과 2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계몽상농업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원산 농업종합대학, 농기계공업관리국 농기계연구소 등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수십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음.
- 참가자들은 능률적인 농기계를 적극 창안도입하는 것에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을 발표하였음.

- 다용도, 다기능화된 현대적인 농기계를 개발하고 농기계와 그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 《종합토양관리농기계》, 《남새종자가공 공정현대화》, 《안개분무기》, 《회전팔식품모으는기계》, 《이동식벼종합탈곡기》, 《농기계종합시험장치》 등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음.

우리 식의 감자병 예방 및 구제체계 확립 -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
(로동신문 2017.08.01.)

- 최근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 수경 재배에 의한 감자 원종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종합적인 병 예방 및 구제체계를 확립하였음.
- 이번에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개발한 감자 원종 생산에서의 병 예방 및 구제체계는 수경 재배과정에 발생하던 여러 가지 병해충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고 새로 만든 농약들이 충분한 구제 효과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해 나갈 수 있음.
 -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거쳐 감자 원종 생산과정에 발생하던 10여 가지 병해충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감자병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
 - 이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농약들과 세균병 진단 수단들을 개발하였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병해충 구제 효과가 큰 수단들을 이용한 합리적인 병 예방체계도 확립하게 되었음.
 -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리 식의 감자병 예방 및 구제체계를 도입한 결과 감자 원종을 생산하는 수경온실들에서 병 예방 및 구제율을 98%이상 높여 종자감자의 확대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음.

새로운 물 처리기술 개발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에서
(로동신문 2017.08.09.)

- 최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소금물로 음이온 교환수지에 흡착된 철유기화합물을 공업적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음.
 - 이 기술은 원리가 간단하고 많은 시약과 보조설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탈염수 생산 공정들이 있는 임의의 단위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음.
- 지난 시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이온 교환수지의 노화와 철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염, 물청정공정에서 응집제소비량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온 교환탑의 물 처리 능력이 떨어져 탈염수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었음.
- 화학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소금물침출법에 의한 음이온 교환수지의 오염제거

기술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도입한 것에 의하면 음이온 교환탑의 물 처리 능력이 훨씬 높아져 탈염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음.

-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던 음이온 교환수지를 수십톤, 이온 교환수지의 오염제거에 이용되던 수많은 가성소다와 류산을 절약하여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을 주었음.

새형의 강냉이 탈곡기 창안제작 -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에서(로동신문 2017.08.18.)

-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에서 새형의 강냉이 탈곡기를 창안제작하였음. 이곳 연구사들이 새로 만든 직류비빔식강냉이 탈곡기는 농산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될 능률적인 농기계임.
- 이 탈곡기는 품이 많이 드는 강냉이탈곡작업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일 수 있는 농기계로서 좋은 점이 많음.
 - 또한 이 농기계는 강냉이알과 송치가 잘 분리되고 한 번의 통과로 강냉이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어 농업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 무게도 가볍고 실정에 맞게 원동기를 이용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이동하여 쓸 수 있음.
 - 직류비빔식강냉이 탈곡기의 기술적특성을 보면 작업능력이 시간당 1.5-2톤임. 손상률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1-0.3%, 정선률은 99%이상으로서 경제적 의의가 큼.

그림 1 강서분무기공장의 광폭미립분무기



자료: 로동신문, 2017.08.09.

수십 종의 농기계 창안제작 -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로동신문 2017.08.21.)

- 농업과학연구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십 종의 능률높은 농기계를 창안제작하였음.

- 농기계공업관리국 농기계연구소에서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 아래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수 있는 20여종의 농기계를 창안제작하고 현실에 도입하고 있음.
 - 올해에 만들어낸 종합밭갈이기계와 후치기, 논두렁짓는기계를 비롯한 새형의 농기계들은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농사일을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하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기계들임.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10여종의 농기계를 창안제작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에 적극 이바지하였음.
- 이들이 내놓은 물절약형논수평갈이보습은 논갈이와 씨레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노동력과 물소비량을 훨씬 줄일수 있으며 수자조종벼, 밀, 보리종합씨뿌리는기계와 강냉이뿌리뽑는기계도 이용 가치가 커서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음.

그림 2

광폭미립분무기를 활용한 농작물 비배관리



자료: 로동신문, 2017.08.31.

과수학연구소현대화공사 마감 단계에서 추진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9.05.)

-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현대화공사가 마감 단계임. 이미 과학연구실청사와 사무청사, 합숙 및 정양소 골조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평안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로 내부 공사와 조직배양 및 순화온실 건설을 동시에 힘 있게 내밀면서 연일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다수확 벼 품종들 넓은 지역에 확대도입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에서 (로동신문 2017.09.08.)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새로 육성한 다수확 벼 품종들을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음.

-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수확 벼 품종들을 육성해내는 연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깊어 자각한 벼연구소와 각지의 벼연구분소들의 과학자들은 지난 기간 과학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는 과정에 북한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다수확 벼 품종들을 새로 육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이들이 새로 육성해낸 1대 잡종벼 품종들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불리한 자연 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음.

◆ 가뭄 대처 관련

가뭄과의 작업성과 계속 확대(로동신문 2017.07.01.)

-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연 8만여 정보의 논과 밭들이 폭 적셔졌음.
- 농업성을 비롯한 각급 농업 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양수동력설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포전별 농작물 생육 실태를 따져가며 가뭄을 탈수 있는 포전들부터 집중적으로 관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우물과 굴포, 줄짙을 새로 확보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모든 운반 수단에 물통을 설치하여 더 많은 물을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 인민군 군인들은 물 원천 확보 사업을 선행시키고 각종 운전기재들과 원동기, 양수기, 강우기들의 전부 가동을 보장하며 매일 수천㎡의 물을 퍼 올려 포전에 흘려들도록 하고 있음.
 - 평안남도 가뭄 피해막이 작업장에서도 500여 개의 굴포와 1,400여 개의 우물을 파고 수십리 물길 건설과 수백리 구간의 물길 확장공사를 하였음.
 - 평안북도에서는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조직하여 원동기가 달린 양수기 50대를 시, 군들에 긴급 보장하였으며, 함경남도 정평군에서도 9개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에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10여km의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여 물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물차와 양수기, 배낭식분무기 등을 가지고 농촌들에 나간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성, 기계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은행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과 지원자들은 매일 맡겨진 물 주기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로동신문 2017.07.01.)

- 황남 땅에서는 가뭄과의 작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단 며칠 동안에 1,000여 개의 우물과 수백개의 굴포, 240여 개의 보막이공사, 연 16km의 물길 확장공사가 진행되었음. 매일 1만 수천대의 자동차와 트랙터,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

반 수단들이 총동원되고 있음. 수십대의 유압식굴착기와 유압식삽차들을 전부 가동시켜 10만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200여 개소에 보막이, 저류지공사를 진행하여 600여 정보의 논밭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음.

- 도안의 각급 당조직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강령군을 비롯한 가뭄이 심한 군들에 이동식양수기와 배양식분무기 등을 마련해가지고나간 도급기관 일꾼들은 농장 일꾼들, 농장원들과 물 주기도 함께 하고 물 원천을 확보하여 가뭄 피해막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강령군에서는 송현, 내동, 오봉리 지구에 연 수km나 되는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포전을 적시고 흘러나온 퇴수를 다시 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민협동작전을 펼쳤음.
 - 용진군에서는 화산저수지에 물을 채울 목표 아래 기존에 있던 지하 저수지 능력을 2.5배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음.
 - 신원군의 일꾼들은 30여 개소의 양수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풀어주어 양수기들이 전부 가동하도록 하고 있음.
 - 배천군에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농장원들, 인민군 군인들이 투입되어 하루 동안에 주요 물길 6개소에 연 60여km의 물길을 정리하여 많은 면적의 포전들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음.
 - 봉천군, 태탄군, 연안군, 청단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일꾼들도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드세찬 공격전으로 가뭄과의 작업에 계속 박차를 - 황해북도에서
(로동신문 2017.07.02.)

- 황해북도 황주군으로부터 분계연선 장풍군에 이르기까지 가뭄과 싸우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지금 매일 수십 만명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공장, 기업소노동자들과 가두인민반원들이 가뭄 피해막이작업에 투입되어 수천 정보의 포전을 적시고 있음.
 -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각각 수백개의 우물과 굴포를 새로 팠으며 수천개소에 물주머니를 만들고, 매일 가뭄 피해를 받고 있는 논들에 대한 물 주기와 앞땃비료 주기, 논바닥굽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음.
 - 황주군에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 주민들은 수백대의 트랙터, 천수백대의 달구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수십대의 운전기재와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매일 수백정보의 포전에 물을 주고 있음.
 - 중화군의 가뭄 피해막이작업에 투입되어선 인민군 군인들은 굴착기를 비롯하여 기계수단들을 가지고 여러 개의 굴포파기를 진행하였으며 자동차 등 운전기재들과 운반 수단들을 이용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밖에도 장풍군, 금천군, 서흥군, 평산군, 린산군 등의 지역에서도 가뭄 피해를 막고 당면한 영농공정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물 원천 확보에 선차적힘을 - 안주시에서(로동신문 2017.07.02.)

- 안주시에서 물 원천 확보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미 가뭄과의 작업에 진입하여 60여 개의 우물과 40여 개의 굴포, 20개소의 보막이공사를 끝낸 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시급기관 책임일꾼들을 농장들에 내려 보내 가뭄 피해를 받고 있는 면적들을 곡종별로 조사장악하게 하였음.
 - 상서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물 원천을 조사하고 우물과 굴포를 파고 보막이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리고 상서천에 대형 포크레인을 들이밀어 보막이공사를 단 하루 동안에 끝냄으로써 수백㎡의 물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였음.
 - 능력이 큰 2개의 저류지에서 바닥 파기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포전들에 우물과 굴포들이 만들어졌음.
 - 일꾼들이 농장,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양수기들과 원동기들을 새로 건설한 우물과 굴포들에 기동적으로 설치하고 물 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림 3 북한의 가뭄 피해 막이 작업



주: 우측 첫 번째 사진은 사진의 구도가 어색한 것으로 보아 합성한 것으로 추정됨.
자료: 로동신문. 2017.07.03.

주타격전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7.07.04.)¹⁾

- 황해북도에서는 도적으로 매일 수십 만명의 노동력과 수천대의 운전기재들이 동원되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크게 벌어지고 있음.

1) 편집자 주 - 2017년 7월 4일에는 한포기도 피해를 받지 않게 - 사리원시에서, 높아진 물통과능력 - 금천군 강북협동농장에서, 비가 내린 뒤의 긴급포치 - 송림시 신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결사관철의 의지안고 - 장풍군에서, 한마음한뜻으로 - 평산군에서 등 가뭄 피해 대책 관련 기사가 있으나 세부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생략함.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의 일꾼들을 가뭄 피해가 심한 황주군과 금천군, 장풍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 파견하여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힘 있게 벌리게 하였음.
 - 일꾼들은 물 원천을 확보하며 여러 가지 양수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고 있음. 현지에 나간 일꾼들은 우물과 굴포, 졸짱을 더 확보하며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가뭄과의 작업에 동원하는 것에 힘을 넣었음. 특히 도안의 여러 건설장에 있는 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가뭄 피해막이 작업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음.
 -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검찰소, 도인민보안국을 비롯한 도급기관 일꾼들은 양수기, 분무기, 발동발전기 등을 운전기재에 신고 협동별에 나가 농장원들과 지원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가뭄 피해막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당의 작업적호소따라 온 나라가 투입되어 가뭄과의 작업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 힘 있게 과시(로동신문 2017.07.24.)

- 인민군장병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가뭄과의 작업을 벌였음.
 - 전국적으로 수십 만대의 운전기재와 설비들이 동원되고 짧은 기간에 4만여 개의 우물, 굴포, 졸짱을 비롯한 지하수 시설들이 새로 조성되거나 보수되어 관수에 이용되었음.
 - 지난 4월 말부터 지속된 심한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애써 심어가꾼 농작물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자 올해 농업부문에서 자연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알곡 증산을 위하여 가뭄과의 작업을 벌였음.
- 가뭄 피해가 심한 황해남북도에서는 북한군 군인들이 며칠 동안에 4,000여 개의 우물과 졸짱, 굴포, 1만 7,800여 개에 달하는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45만㎡의 물 원천을 확보하였음.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는 이미 건설한 근 2만개의 지하수 시설들이 보수되고 우물 2,800여 개, 굴포 480여 개, 졸짱 520여 개가 더 늘어났으며 1,800여 개소의 보막이도 설치되어 부족한 물 원천이 확보되었음.
 - 도적으로 매일 평균 수십 만명의 노동력과 수천대의 운수기재, 1,200여대의 소형양수기들을 총동원하여 물 주기와 앞뎃비료 주기, 논바닥굵어주기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28일까지 1만 2,000여 정보에 대한 가뭄을 완전히 해소시켰음.
 - 황해북도에서는 영양수를 이용한 효과적인 가뭄 피해막이 방법을 창안도입한 황주군의 경험을 모든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는 한편 물 공급과 소비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하여 성과를 확대하였음.
 - 송림시, 장풍, 수안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 6월 29일 하루 동안에만도 도적으로 8,890여 정보의 논밭에 물 주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평안남북도 평성, 개천시, 평원, 대동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물길 보수 등을 정상적으로 하여 물 낭비를 없애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포전별 및 작물품종별 특성에 맞는 관수 방

법을 적용하면서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였음. 평안북도 시, 군들에 원동기가 달린 양수기들이 긴급 보장되고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는 것에 필요한 많은 자재들이 자체로 해결되었으며 물길가시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장마 대처 및 홍수 피해 예방 관련

로동신문 사설 -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자(로동신문 2017.07.12.)

- 7월과 8월은 장마철임. 지금 우리 앞에는 당면한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음.
-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뭄과 폭우, 태풍, 폭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수많이 발생하고 있음. 북한에서도
 - 최근 해마다 불리한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음. 언제 어느 지역에 무더기비가 쏟아지고 돌풍이 불어칠지 예측하기 어려움.
-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자고 하여도 많은 기일과 국가 투자가 요구되며 그만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게 됨.
 -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이 총동원, 총집중되었던 지난해의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작업은 우리들에게 장마철 피해막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모든 일꾼들은 올해의 작업 목표 수행에서 장마철 피해막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관점을 가져야 함.
 - 자기 단위의 실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끈기 있게 내밀며 장마철 모든 기간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함. 사람들을 즉시에 동원시킬 수 있는 준비도 철저히 갖추어야 함. 원료, 자재보관 관리를 잘하여 장마철에도 생산을 힘 있게 진행해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 각지 농촌들에서는 역량을 총집중하여 물길을 질적으로 정리하고 배수·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빼기시설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야 함.
 - 논밭 머리 도랑과 사이 도랑을 잘 정리하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논밭에 고이지 않게 하여 땅이 유실되거나 곡식이 매몰되는 것과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강냉이와 같이 키 큰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에는 비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며 수확한 앞그루밀, 보리, 감자가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대책을 잘 세워놓아야 함.

- 축산부문에서는 집짐승우리와 먹이가공기지, 먹이창고 등이 큰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 도랑치기를 잘하고 먹이풀 수확과 보관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며 장마철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집짐승병을 예방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장마철의 임의의 정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비상동원준비를 갖추며 철길로반과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함.
- 기상수문국과 전국의 기상관측부문, 단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 부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단기, 중기, 장기예보의 정확성, 과학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함.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 강원도에서(로동신문 2017.07.15.)

-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마철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작업으로 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을 짚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꾼들은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장마철 기간에 큰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문과 단위에서 장마철 생산대책을 면밀히 세우게 하고 있음.
 - 특히 비바람과 큰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따져가며 미리 작전하고 실정에 맞게 피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시, 군들에서 비바람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도안의 농업부문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시,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경지들이 큰물에 의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와 물 도랑을 새로 정비하며 배수·양수 설비들을 전부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농작물들이 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음.
-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언제와 수문들을 적시에 보수 정비하여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이나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두만강 제방 및 호안공사 완료, 중소하천정리와 도로개건 추진 - 함경북도에서 (로동신문 2017.07.18.)

- 함경북도 북부지구의 시, 군들에서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양의 채석 및 운반, 성토와 장식 쌓기를 진행하여 두만강 제방과 호안을 큰물에도 끄떡없게 변화시켜 놓았음.

- 경원군과 온성군, 회령시, 송평구역, 명간군, 경흥군을 비롯한 시, 군, 구역들과 도지방건 설건재관리국, 도에비자재상사, 도대흥관리국,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쌍룡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두만강 제방 및 호안공사를 힘 있게 진행하였음.
-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와 부령합금철공장, 국토환경보호성과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연관 단위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물자, 운전기재를 보장·책임을 맡 았음.

큰물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7.19.)

- 황해남도에서 큰물 피해막이작업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며칠 동안에만도 도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80여만㎡의 토랑 을 처리하고 연 100여km의 하천을 정리하였음. 또한 연 25km의 해안 방조제 보수 공사, 180여km의 승수로치기, 1,000여km의 배수로정리를 하였음.
- 해주시, 안악군, 연안군, 벽성군, 재령군, 봉천군, 배천군, 은천군, 태탄군을 비롯한 도안 의 모든 군들에서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배수로, 승수로, 강하천정리에서 혁신 - 각지 농촌들에서(조선중앙통신 2017.07.21.)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일주일 동안에 1,000여km의 배수로, 승 수로, 강하천을 정리하고 수많은 관개 및 배수시설들의 보수 정비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 하였음.
-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의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큰물과 비바람 피해 를 입을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이해장악한 것에 기초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짜 고들었음.
- 황해남도에서는 저수지들의 수문과 권양 설비들에서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퇴치하였으며 수백km의 배수로 치기를 진행하여 물길 바닥을 크게 낮추었음.
 - 은률, 신천, 신원, 배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촌들에서 비바람에 의해 곡식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밭 둘레를 따라가며 새끼줄을 든든히 쳐주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포전들에 돌림물길들을 터주어 무더기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게 하였음.
-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 도에서는 빗물이 많이 고이는 곳들에 양수 설비들을 집중배치하도록 하고 도랑들을 잘 가 셔내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해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웠음.

- 정주시와 철산, 선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2만여㎡의 장석 쌓기를 진행함으로써 해안 방조제를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보강하였음.
- 황해북도 안의 근로자들은 백수십대의 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빼기시설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마무리하고 수많은 관개시설물과 배수구조물들을 보수보강하여 농경지와 농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음.
 - 송림시와 황주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농촌들에서는 양수기운전공,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노동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길 정리와 배수로 치기,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였음.
-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일주일동안에 수십km의 강하천제방들을 보수 정비한 것에 이어 110여km의 배수로 치기와 양수장들의 설비수리를 말끔히 끝냈음.
-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농장들에서도 농경지들이 큰물에 의해 침수되지 않도록 논밭 머리 도랑과 사이 도랑을 잘 가셔내고 배수·양수 설비들을 전부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놓았음.

장마철 논벼 재배에서 주목되는 문제(로동신문 2017.07.30.)

- 장마철에 무더기비가 내리고 큰물이 나면 논벼 재배에 심한 영향을 미침.
 - 발달된 통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논벼도 물속에 오래 잠겨있으면 광합성을 잘하지 못하며, 토양 속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류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에 의해 뿌리의 숨쉬기와 영양 성분 흡수 능력이 약화됨. 그 결과 논벼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소출도 떨어짐.
- 논벼 재배에서 큰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벼의 생육시기, 물에 잠긴 높이와 기간에 따라 다름.
 - 특히 뿌리 활성이 제일 왕성하고 이삭이 패고 꽃이 피는 시기인 7-8월에 하루 이틀만 큰물에 잠겨 있어도 피해는 매우 큼.
 -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 무더기비와 큰물로 인한 논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선 물잠김견딜성이 강한 품종을 육성도입하고 있다고 함.
- 해마다 큰물 피해를 입고있는 논벼 재배지역들에 새롭게 연구해낸 1대잡종벼를 심었더니 보통조건에서는 량친과 큰 차이가 없었던 1대잡종벼의 수확고가 영양 생장 단계에서 10일 정도 물에 잠긴 경우 량친에 비하여 3-6배나 높았다고 함. 또한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받아들여 물잠김견딜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함.
 - 연구한 것에 의하면 질소와 칼륨은 논벼에서 무기염의 축적을 줄이고 뿌리 활성을 강화하며 광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물잠김견딜성을 강화해준다고 함. 그리고 린과 규소, 아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함. 큰물이 지나간 후 생육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즉시 비료를 주어 영양을 보충해주고 성장조절제를 이용하여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다음으로 적시에 병을 구제하고 있다고 함. 일반적으로 큰물이 난 경우 논벼는 병해를 심하게 입음. 벼무늬마름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의 발생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효능 높은 농약을 사용하여 적시에 병을 구제만 하여도 수확고의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함.

장마철 피해막이사업에 큰 힘을 - 개성시에서(조선중앙통신 2017.08.19.)

- 개성시에서 장마철 피해막이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음.
 - 지난 며칠 동안에만도 저수지연제들의 위험개소들이 퇴치되고 수십개의 배수갑문이 보수 정비되었으며 100여 km의 배수로와 강하천이 말끔히 정리되었음.
- 시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저수지보수 공사에 노동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여 일주일동안에 수천㎡의 토량과 1,600여m의 배수로 공사를 질적으로 하였고, 저수지가 그 어떤 큰물에도 문제없이 만들었음.
 - 시의 관개부문 일꾼들은 황강포배수갑문을 비롯한 저수지들의 수문과 권양 설비들 가운데 완비되지 않은 개소들을 찾아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양수장들에 10여대의 양수 설비들을 더 설치해주어 고인물을 적시에 뽑을 수 있게 하였음.
- 협동농장들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불어나 논밭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수백㎡의 장석 공사와 수백m의 해안 방조제 보수 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였으며 130개소에 164km의 돌림물길도 터놓았음.
 - 해선, 덕암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이 논밭 주변으로 흐르는 10여km의 강하천 바닥 파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송도, 풍덕, 선적협동농장에서도 비바람에 의해 곡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밭 들레에 새끼줄을 든든히 쳐주고 빗물이 적시에 빠지도록 물 도랑도 깊숙이 파주었음.

◆ 기타

로동신문 사설 - 가을걷이작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자(로동신문 2017.09.15.)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풍년 농약 소리 높이 올려야 함.
 - 군대와 인민은 예년에 없던 흑심한 가뭄과의 일대 격전을 추진하였으며, 다수확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놓았음.
- 농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의 기본은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최적기에 끝내는 것임.
 - 변덕스러운 자연기후현상으로 언제 우박과 서리가 내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을걷이를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함. 여물기 과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수확적기를 정확히 정하고 그에 맞게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삭이 여무는 족족 가을해야 함.

- 자료에 의하면 가을한 낱알에서도 숨쉬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논밭에 한달만 놓아두면 수확고가 20%나 줄어든다고 함. 또한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에 의해 적지 않은 낱알이 없어지게 되며 예상치 않은 기상기후 조건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
- 각 도,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상기후 조건과 품종적 특성에 맞게 적기를 정확히 정하고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와다닥 끝내야 함.
 - 수매량정성과 해당 단위들, 농촌들에서는 양곡 수매와 운반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보관관리를 잘하여 귀중한 낱알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농림축산업

◆ 농업

최북단의 전야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 경원군에서 세벌김매기성과 계속 확대 (2017.07.02.)

- 함경북도 경원군에서는 논밭 세벌김매기가 매일 평균 전체 면적의 11%씩 진행되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 2배의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논밭 김매기를 다그치도록 하고 있음.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어도 농작물보다 생활력과 토양 영양 성분 흡수력이 센 김이 많으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없지만 김(잡초 등)을 잘 잡으면 소출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농포협동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진행하고 있음. 룡당협동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논밭 세벌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축력제초기를 이용하여 일을 쉽게 하면서도 땅 관리와 김매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지난 시기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 그 이용률을 훨씬 더 높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담당자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추진하여 김매기를 일정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과일군의 첫물 복숭아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에게 공급(조선중앙통신 2017.07.11.)

- 과일군에서 생산된 올해 첫물 복숭아를 실은 과일수송대가 9일 평양에 도착하였음.
 -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질 좋은 거름을 충분히 내고 과일나무들의 생육 조건을 따져가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첫 수확기부터 좋은 작황을 마련하였음.

그림 4 평양에 도착한 첫물 복숭아



자료: 로동신문, 2017.07.11.

비료 효과성을 높이는 피복 처리기술을 받아들여 - 동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7.07.14.)

- 동림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비료를 피복 처리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폴리비닐알콜용액과 진흙, 여러 가지 미량 원소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피복 처리한 비료는 종전의 비료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함.
 - 일반적으로 포전에 비료를 준 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비료 성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지 않게 유실됨.
 - 그러나 이 비료를 주는 경우 종전보다 그 유실량을 훨씬 줄일 수 있음. 비료를 피복하면 알갱이겉면에 미세한 얇은 막이 형성되므로 물속에서 천천히 풀림. 이로부터 논벼는 비료 성분을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음.
- 지난 시기 군에서는 모래기가 많은 포전들에서 물 침투에 의한 비료 성분의 유실현상이 심하여 비료 효과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음. 어떤 포전에는 비료를 여러 차례 쳤지만 수확고는 기대했던 것보다 오르지 못하였음.
- 하지만 피복 처리한 비료를 주면서부터 이러한 결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음. 군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시험적으로 피복 처리한 비료를 준 포전에서는 처리하지 않은 비료를 준 것에 비하여 비료 성분이 20여 일 간 더 유지되었음.

우렁이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 -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2017.07.19.)

-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새끼 우렁이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그 덕을 보게 되었음.
 - 포전들에 새끼 우렁이들이 종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지난 시기보다 논벼의 초기생육이 훨씬 좋아진 것은 물론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여서 그만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음.
- 농장에서는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알깨우기를 농장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알깨우기률을 높였음.
 - 종전에는 알깨우기를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많은 노동력이 들었음. 또한 때 성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이 달라 온도와 습도 보장, 관리에서 차이가 났으며 결국 이것은 알깨우기률을 높이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 그러나 지금은 알깨우기를 기술수준이 높은 몇명의 기능공들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편향이 극복되었음.
- 올해에는 우렁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위하여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와의 긴밀한 연계 아래 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알깨우기를 할 예정임.

농작물영양 관리개선에 모를 박고 - 대동군 와우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7.19.)

- 대동군 와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농작물들의 영양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음.
 - 7월은 농작물들이 영양 생장으로부터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두 생육단계가 겹치는 이 시기에 농작물은 특별히 많은 영양물질을 요구함.
- 우선 논벼들의 잎에 영양제를 일정한 양의 물에 풀어 2-3회 정도 분무해줌으로써 품종적 특성에 맞는 잎색이 보장될 수 있게 하였음.
 - 티오균과 칼리티탄비료용액을 요소비료용액과 3일 간격으로 엇바꾸어 분무해주도록 하였음.

풀 베기를 경쟁적으로(로동신문 2017.07.22.)

- 각지 농촌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거름생산은 곧 알곡 증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고원군 신창협동농장 일꾼들은 7월의 풀거름 생산을 각별히 중시하고 진행하였음.
 - 현재의 날씨 조건에서 풀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 다져놓으면 3-4일후부터는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을 담보할 수 있었음. 이로부터 농장 일꾼들은 농장원별, 세대별 풀거름 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것이 응당한 높이에서 수행되도록 앞장에서 이끌어나갔음.

- 사리원시 만금남새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은 풀 베기 조건이 불리한 단위이지만, 재령강 쪽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베어 각 분조의 퇴적장에 채우고 도시거름과 같은 비율로 섞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였음.

대용 비료 생산이용에 힘을 넣어 -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7.22.)

- 일반적으로 논벼나 강냉이는 이삭비료주는 시기에 질소, 칼리, 린,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 원소들에 대한 요구성이 높음. 농작물이 영양물질을 충분히 흡수해야 이삭당 알수, 여분률, 천알질량을 늘릴 수 있음. 올해의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은 농작물의 생육에 일정하게 지장을 주었음.
- 내중협동농장에서는 대용 비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였음. 대용 비료는 생산 방법도 간단하여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었음. 부식토와 진거름, 요소, 소금, 회망초와 구들재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다져놓음. 비료 성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박막을 덮어 놓고 일정한 온도를 보장하면서 며칠 간 놓아두면 대용 비료가 얻어짐.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7.23.)

-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콩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비결은 콩농사에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것에 있음.
- 대암협동농장의 일부 작업반은 지난 시기 콩농사를 잘하였음. 특히 모판 단계에서 순치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정보당 콩생산량을 크게 늘렸음.
 - 일반적으로 콩은 벼나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 작물들과는 달리 한개의 원줄기로부터 곁가지를 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곁가지수가 많지 않음. 이것은 그대로 수확고에 영향을 미침.
 - 그래서 지난 시기 이 작업반들에서는 순치기를 하여 곁가지수를 늘리는 방법을 받아들였음. 이 방법의 장점은 곁가지를 늘려 포기당 가지수와 꼬투리수, 알수가 많아지게 한다는 것에 있음.
 - 또한 키가 작아져 넘어집전달성이 세지는 것임.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순치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잘 알고 받아들인 결과 종전보다 콩을 정보당 수백kg이나 증수할 수 있었음.
 - 올해에는 컴퓨터투영기로 다매체편집물을 농장원들에게 보여주고 기술지도를 하여 농장 전체에 보급하였음.

열흘동안에 수백만톤의 풀을 베어들었다 - 각지 농촌들에서(로동신문 2017.07.24.)

-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풀 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신천군 농업근로자들은 열흘 동안에 약 3백만 톤의 풀을 베어들었음.
- 평양시 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 밑에 첫 시작을 잘 떴 기세로 연일 풀 베기실적을 올렸음.

- 평안북도 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농장 일꾼들과 함께 풀 원천을 찾아 노동력과 운반 수단을 집중시켜 풀 베기를 진행하고 있음.
- 이밖에도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에서도 풀을 베고 있음.

논벼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 온천군에서(로동신문 2017.07.30.)

- 온천군에서 논벼 비배관리가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비료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작전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임.
 - 온천군에서는 적은 양의 비료를 최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옳은 방법론을 탐구하여 적용하였음. 비료에 어느 한 무기산피막을 씌운 다음 흙보산 비료로 겉면을 처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효과성을 2일 정도 더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지난해 마영협동농장 제3작업반을 비롯하여 군안의 적지 않은 포전들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당 수백kg, 최고 1.2톤정도의 논벼를 더 생산하였음.
 - 뿌리썩음병이 심하게 나타나군 하던 포전들에 티오균비료를 충분히 주기 위한 사업, 아미노산미량 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효능 높은 대용 비료들을 더 많이 생산이용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음. 이 사업들이 은을 낸 결과 제일 우려했던 간석지 포전들에서도 논벼들은 층하없이 잘 자라고 있음.

벼잎의 활성을 높여 - 안악군에서(로동신문 2017.08.03.)

- 안악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장마철의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예견성 있게 논벼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벼잎은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찢어지거나 몹시 흔들리면서 쓸려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은 잎에 균이 쉽게 침습함.
 - 또한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시기는 까나온 벼잎말이새끼벌레들이 벼잎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때임. 현실은 현장을 밝아보며 실태를 환히 꿰들고 예견성 있게 작전해나가는 일꾼들을 요구하고 있음.
 - 균일꾼들은 예찰예보사업을 짜고들면서 농약을 잎에 분무해주는 방법에 의한 병해충피해막이를 진행하였음.
 - 또한 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과학자들과의 연계 아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도 진행하였음. 여러 가지 논물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뿌리 활성을 높였음. 또한 높은 온도의 피해를 받지 않게 물관리를 하는 것이었음.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서 중시한 문제 - 안주시에서(로동신문 2017.08.06.)

- 안주시에서 생육 후반기 농작물 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전체 논 면적에 대한 앞뎃비료 주기를 진행하여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한 것임.
- 올해에는 논벼의 생육 후반기 앞뎃비료 주기를 중시하면서 시적인 사업으로 면밀히 작전하고 진행하였음.
 - 시에서는 7월 말부터 칼리티탄, 아미노산미량 원소복합비료, 성장촉진제 등을 전면적에 앞뎃비료로 줄 것을 계획하였음. 일꾼들은 비료와 성장촉진제의 특성에 맞게 혼합하여 주었음.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첫물사과 수도시민들에게 공급(조선중앙통신 2017.08.13.)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한 첫물사과가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었음.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수발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따들인 수백 톤의 잘 익은 사과를 자동차들에 실어 보냈음.

필지별영농지도를 조직하여 - 문덕군에서(로동신문 2017.08.21.)

- 문덕군에서도 다수확포전이 있음. 문덕군 일꾼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매 포전들의 특성과 지력 상태에 맞게 품종 선택과 모종류, 비료량 등이 반영된 자료들을 만들어 모든 농장원들이 그에 맞게 영농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필지별 일정 계획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수시로 이해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갔음.
- 군에서는 대표적인 포전만을 하던 생육조사를 필지별로 진행하게 하였음.
 - 조사내용도 논벼의 키와 잎수, 아지수만 조사하던 종전과는 달리 잎색과 잎선각도, 뿌리목 둘레까지 파악하였음. 따라서 논벼의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 주기와 영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었음.
 - 군에서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맞게 포화수식물대기, 흐름식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뿌리썩음병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음.

대용농약 생산 토대를 튼튼히 - 금야군에서(로동신문 2017.08.22.)

- 금야군에서 농작물 비배관리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대용농약을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음. 그중에는 논벼의 병해충 구제에 많이 쓰이는 델타수면막제도 있음.
- 군에서 델타수면막제를 만들어 이용하지는 오래되었음. 그 기간에 기름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약간의 화학 농약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델타수면막제를 이용하면 여러모로 좋다는 것이 실증되었음.
 - 델타수면막제를 만들어 이용하면 우선 종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화학 농약을 가지고도 병

해충 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이 수면막제 한 방울을 논물에 떨어뜨리면 물 겉면에 직경이 몇m정도 되는 얇은 막을 형성함. 그러면 생활습성에 따라 움직이는 해충의 몸에 농약이 묻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었음.

- 델타수면막제를 이용하는 경우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음. 한사람이 하루에 7-8정보정도의 포전에 얼마든지 칠 수 있었음. 이는 델타수면막제는 분무하지 않고 한 곳에 한 방울 정도씩 정보당 200개정도의 위치에 떨어뜨려주면 되기 때문임.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 안악군 판록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로동신문 2017.09.01.)²⁾

- 안악군 판록협동농장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농사작황에서 군에서 제일 마지막이었으나, 지금은 농사일이 잘되는 단위로 알려져 있음. 이는 분조장, 분조원들이 자신의 텃밭을 잘 가꾸는 것처럼 농장의 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임.

필지별작황을 따져보며 -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9.13.)

-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의 일꾼들이 필지별로 강냉이작황을 보면서 강냉이 가을걷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강냉이 가을걷이를 적기보다 일찍 하면 낱알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여 천알질량이 가벼워져 소출이 떨어지며, 반대로 가을걷이를 적기보다 늦게 하면 강냉이대가 넘어지고 이삭목이 꺾어져 낱알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임.
 - 농장에서는 포전별, 필지별 강냉이작황을 놓고 가을걷이를 진행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9.18.)

- 평안남도의 농촌들이 올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강냉이 가을걷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안주트랙터부속품공장에 수십톤의 소재를 보장해주고 농기계 부속품 생산을 다그쳤음. 시, 군들에 내려간 일꾼들은 트랙터 부속품들을 해결해주고 탈곡기 수리는 물론 탈곡장보수에 필요한 자재도 마련해주었음.
 - 시, 군들에서는 중소농기구품평회를 진행하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였음.
 - 숙천군, 평원군, 대동군, 개천시, 문덕군에서도 벼종합수확기수리와 강냉이 탈곡기 수리를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였음.

2) 편집자 주 - 해당 기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농장원의 개인 텃밭과 협동농장의 성과가 대비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도하였음.

본보기농장마을 훌륭히 건설 - 남포시에서(로동신문 2017.09.21.)

- 남포시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서구역 태성리에 본보기농장마을을 훌륭히 일떠세웠음.
- 118동에 182세대의 새 살림집들과 태성원, 문화회관, 탁아소와 유치원 등 수십동의 공공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어 태성리의 면모는 완전히 일신되었음.

그림 5 남포시 본보기농장마을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7.09.21.

포전별적기 선정을 바로하여 -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9.22.)

- 농장에서는 낱알 허실을 막으면서도 강냉이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예전에 가을걷이를 적기보다 일찍 한 작업반에서는 낱알이 채 여물지 못하여 소출이 떨어졌고 품질도 낮았으며, 반대로 가을을 늦게 한 작업반에서는 천알질량이 떨어졌음. 하지만 좋은 결실을 거둔 작업반들에서는 적기 선정을 과학적으로 하여 정보당 알곡 생산량을 수백kg이나 늘렸음.
- 실제로 농장에서는 여러 품종의 강냉이를 재배하였고 작업반마다 포전별 농사 조건이 각이하여 여무는 상태가 달랐음. 이런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가을걷이 시기를 정하면 그 성과가 매우 클 수 있었음.
- 따라서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서 품종과 포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문 정도에 맞게 가을걷이적기 선정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였음.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낱알이 익는 족족 가을할 수 있게 사업을 빈틈없이 하였음.

청춘과원에서 사과 따기 한창 -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9.28.)

-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요즈음 사과 따기가 한창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 품종의 과일나무 재배 기술을 더욱 완성하며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힘차게 진행했음.

◆ 임업

산림복구작업승리를 앞당길 열쇠를 찾아주고 - 양덕군 일꾼들과 근로자들
(로동신문 2017.07.13.)

- 나라의 모든 산을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변화시키자면 나무모 생산을 부쩍 늘리는 것과 함께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도 품을 들어가며 책임적으로 해야 함.
- 최근 군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였음. 그 결과, 나무모 생산량은 산림복구작업 전에 비하여 3.5배 이상 상승하였음.
 - 나무모 온실에서 한해에 나무모를 2회 생산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또 하나의 수백 m²짜리 강질유리온실을 만들고 야외재배장에서 자라는 나무모들의 영양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강질유리온실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음.
 -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은 나무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경영소 일꾼들은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았음. 가래나무잎우림액을 비롯한 식물성농약과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성장촉진제들도 자체로 마련하여 이용하는 등 심은 나무들의 영양 관리에 신경을 들었음.

앞선 나무모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 신의주시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7.07.13.)

- 신의주시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서는 창성이깔나무모, 잣나무모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모들이 잘 자라고 있음.
- 경영소에서는 앞선 나무모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꾼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분무장치를 질적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음.
 - 그 결과 회전하면서 물을 자동적으로 분무해주는 설비가 원형삼목장에 갖추어지게 되었음. 또한 그 어떤 가뭄에도 끄떡없게 저류지를 종전보다 더 크게 확장하였음.

- 경영소에서는 팽화질석으로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팽화질석을 사용하면 창성이깔나무 모는 1년, 잣나무모는 2년정도 앞당겨 산에 심을 수 있음.
 - 또한 경영소는 영양단지에 의한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힘을 넣었음.

나무모 생산에 앞서 중시한 문제 - 동창군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7.08.01.)

- 동창군의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 병해충 구제에 힘을 넣어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하여 바늘잎나무모 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음.
- 지난 시기 바늘잎나무모 생산량은 많지 못하였음. 세잎소나무를 비롯하여 바늘잎나무모들에 한해서는 품을 들인 것에 비하여 성과가 적었음. 원인을 분석해보니 땅속해충들에 의한 피해가 심한 것에 있었음. 여러 가지 농약들을 뿌리었다고는 하지만 땅 위에 있는 병해충들만 죽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구제되지 않았음.
 - 토양 소독을 하여 땅 속에 있는 병해충까지 구제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전면적의 모체양묘장토양을 소독할 소석회와 석회질소비료를 구입하여 치기 위한 노력하였음. 굼벵이를 비롯한 땅속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어졌고 씨를 뿌려 키운 나무모의 사름률이 크게 높아졌음.

그림 6 린산군산림경영소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7.08.05.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퍼친다 - 자강도에서(로동신문 2017.08.06.)

- 자강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관상적 가치가 있고 빨리 자라며 환경 적응 및 병해충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퍼치고 있음.

- 지금 도안의 이르는 곳 마다 참대버드나무림이 푸른 숲을 이루고 있음. 시, 군들의 양묘장과 기관,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의 비경지들, 산비탈, 도로, 공원들에서 참대버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 참대버드나무는 심어서 5-6년이면 용재로 이용할 수 있고 발열량이 높아 땀감 문제를 풀 수 있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어 가로수나 정원수로 적합함.
 - 도에서는 지난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양묘장들을 현실성 있게 꾸리고 참대버드나무를 퍼뜨리기 위한 사업을 조직전개하여 60여 정보에 수백만 그루의 참대버드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올해에는 백수십 정보에 1,200여만 그루의 참대버드나무를 심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 진행하고 있음.
 - 참대버드나무모는 뿌리가 빨리 내리고 싹트는 능력이 강하여 가지꽃아십기 사름률이 95% 이상이며 온도가 7℃ 이상이면 성장하기 시작하고 30℃에서도 살아전단다고 함.
- 이와 같은 특성을 파악한 고풍군의 산림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겨울철에 300㎡의 온실에서 가지심기의 방법으로 30만 그루 이상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군에서는 이렇게 생산한 참대버드나무모들을 주변 산과 강하천주변, 비경지들에 밀식으로 심어 산림과 토지를 보호하고 땀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고 있음.

모체양묘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 평산군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7.08.22.)

- 평산군산림경영소의 모체양묘장이 새롭게 꾸려졌음. 회전분무식원형삼목장과 야외재배장, 나무모 온실, 과학기술보급실, 팽화질석생산기지 등이 갖추어지고 태양빛전지에 의한 물보장체계도 확립되어 나무모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
 - 모체양묘장에서는 생물 농약 생산 토대를 자체적으로 갖춰 놓았음. 생물 농약을 자체로 생산하여 이용하면 종전보다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병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통나무생산 계획 넘쳐 수행 - 립업성에서(조선중앙통신 2017.09.11.)

- 립업성적으로 8월 통나무생산 계획이 117%로 완수되었음. 이는 덕천, 북창, 양덕, 대흥 갱목생산사업소 등의 노동계급이 관리국적인 통나무, 동발나무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것에 기초함.
- 함경남도림업관리국산하 장진, 도안림산사업소, 수동갱목생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채벌장조건에 맞게 통쏘이길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이용률을 최대로 높여 생산 실적을 부쩍 끌어올렸음.

- 자강도, 강원도립업관리국산하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운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공정간 연계를 잘하여 생산한 통나무를 실어 날랐음.

그림 7 증산군산림경영소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7.09.17.

◆ 축산업

축산물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 자강도목장관리국에서(로동신문 2017.08.03.)

- 자강도목장관리국 아래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고기와 알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대적으로 꾸려진 홍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들에서 지난 6월 25일까지 상반기 고기와 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계속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도목장관리국에서는 축산물 생산 계획을 높이 세우고 사료 보장 대책을 세우면서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보다 튼튼히 닦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 있음.
 - 관리국의 일꾼들은 평원닭공장이 개건되고 자강첨가제공장에서 효능이 좋은 집짐승종합먹이 첨가제 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되는 것에 맞게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닭공장들에서 요구하는 종금알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먹이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알날이름과 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전을 현실성 있게 진행하였음.

- 자강첨가제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수백 톤의 원료를 마련하고 설비들의 전부 가동을 보장하여 집짐승먹이 첨가제 생산을 늘렸고,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 등에서 상반기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것에 적극 이바지하였음.
- 홍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관리국 아래 모든 공장들에서 사회주의 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나갔음.
 - 홍주닭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닭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였음.
 - 강계돼지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종축체계가 세워진 것에 맞게 어미돼지들의 수정 적기를 정확히 포착하고 인공수정 방법으로 한배에 낳는 새끼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강계오리공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종자오리가 확보되고 먹이가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에 맞게 종자오리 사양 관리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새끼오리 생산에 큰 힘을 넣었음.
 - 이밖에도 평원닭공장, 만포닭공장, 전천닭공장, 성간닭공장, 희천오리공장, 전천오리공장 등에서도 집짐승들에 대한 과학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추진하여 상반기 고기와 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식품업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기까지 -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7.15.)

-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사탕 생산 공정이 얼마 전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음.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사탕들은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품질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되어 인민들의 인기를 더욱 끌고 있음.
- 공기조화체계를 확립하고 생산현장 여러 곳에 자외선 소독등을 설치하였음. 분석실에는 향온송풍건조기, 회화로, 무균조작대를 비롯한 10여 가지의 설비들을 갖추어 놓았음.

◆ 기타 작물

봄 누에고치 생산 마감 단계에서 힘 있게 추진(로동신문 2017.08.02.)

- 각지 누에고치 생산자들이 봄 누에고치 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힘 있게 진행하고 있음.
- 잠업비단공업국 산하 고치생산사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작업을 진행하였음. 일꾼들은 누에고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짚으며, 병발 관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등을 적시에 보장해주고 기술적 지도를 진행하였음.

- 사리원, 사동, 정주, 동림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누에 치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적극 실현하여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형제산, 금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뽕나무 비배관리와 누에 치기를 잘하여 좋은 결실을 마련하고 있음.
- 은천군, 함주군에서는 뽕잎 생산량을 늘리고 누에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고치들을 허실 없이 따들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 안의 고치생산자들은 밀식뽕밭면적을 늘리고 뽕나무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평안남도, 강원도의 고치생산사업소 근로자들도 누에들의 생육 조건에 맞게 누에 칸의 온습도 조절, 위생 관리 등을 잘하여 고치 생산을 늘리고 있음.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 - 평안북도의 고치생산단위에서
(로동신문 2017.08.19.)

- 평안북도의 고치생산단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봄 누에고치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정주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고치생산단위에서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정주잠업종자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뽕밭 비배관리와 누에 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봄누에 치기 시기에 연간 종자누에알 생산 계획을 182%로 넘쳐 수행하였음. 정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산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하여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119%로 넘쳐 수행하였음.
 - 특히 대산작업반, 신봉작업반, 대송작업반, 석산분조, 일신분조의 종업원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음.
- 신의주, 동림, 운전, 태천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뽕밭 비배관리와 누에 치기를 조직하여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념변고치생산사업소 오봉작업반, 망일작업반, 세죽분조, 룡천고치생산사업소 동하분조, 염주고치생산사업소 동성작업반, 주의분조, 의주고치생산사업소 서호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작업반, 분조들에서도 증산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하여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3 농업 기반 및 농자재

◆ 농업 기반 정비

새 관개공사 완공, 첫 통수 보장 - 평원군에서(로동신문 2017.07.03.)

- 평원군에서는 신정저수지의 물을 문흥, 상송협동농장의 농경지에 대주기 위한 물길 건설과 물길 굴대 보수, 전기선늘리기와 양수기 설치 등 방대한 관개공사 과제를 끝내고 첫 통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음.

하천정리로 얻은 이득 - 고평군에서(로동신문 2017.07.11.)

- 고평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고면천에 대한 하천정리공사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전부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고면천이 손색이 없게 정리되어 6정보에 달하는 새 땅이 얻어졌고, 읍협동농장의 10여 정보의 농경지가 큰물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음.

물이 쪽쪽 빠질수 있게 - 덕천시 운흥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7.11.)

- 덕천시 운흥협동농장에서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km의 하천제방공사와 10여리구간의 도랑석축공사, 수십리 구간의 배수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그리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의 유실을 막고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음.
 - 농경지가 사방 높은 산으로 둘러막혀있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일꾼들은 장마철 피해막이의 중심을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쪽쪽 빠지도록 하는 것에서 찾았음. 그리고 이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였음.
 - 특히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이 넘어나거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천제방을 높이 쌓으면서 제방과 도랑에 석축공사를 진행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짰음.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배수로정리도 힘 있게 진행하였음.

능력이 큰 저수지 새로 건설 - 경원군에서(로동신문 2017.08.24.)

- 경원군에서 수백정미에 달하는 저수지가 건설되어 방대한 면적에 달하는 덕지대밭들을 모두 논으로 개간하여 알곡 생산을 늘리게 되었으며 군안의 관개수문제와 안원지구의 물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자재 및 농기계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착공식 진행(로동신문 2017.07.17.)

- 김정은의 구상에 따라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착공식이 16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를 제시하고 화학공업의 기술 개진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기지들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도록 지시하였음. 린비료 생산을 늘리도록 하였음.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 - 개성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7.25.)

- 개성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주요생산지표인 연간 칼리탄비료 생산 계획은 150%로, 린세균비료 생산 계획은 100%로 수행하였음.
 - 공장에서는 린세균비료와 칼리탄비료 생산에 필요한 종균, 시약, 원료들을 확보하면서 양수기와 발동발전기를 마련하고 설비들을 정비하여 비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였음.
 - 특히 일꾼들은 해당 부문과 황해북도 안의 여러 곳에 찾아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마련하였음.

능률적인 농기계를 창안제작(조선중앙통신 2017.07.25.)

-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새형의 농기계생산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음.
-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종합수확기, 트랙터분무기를 창안 제작하고 파종기와 소형이동식종합탈곡기생산에 총력을 집중하였음.
 - 제관, 가공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들과 생산 공정들을 더욱 완벽하여 탈곡장치와 각종 부속품들의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주물직장, 기술발전과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설비들을 대담하게 개조하여 실용적인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원만히 갖추어 놓았음. 이들은 부속품 소재 생산에 필요한 주물품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고 유압프레스를 새롭게 개조하는 한편 종합수확기의 정선장치, 주행부 등을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음.

올해 농촌에 보내줄 비료 생산 완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8.02.)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7월 20일까지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비료 생산을 완료하였음.
- 시비년도 비료 생산작업의 나날에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암모니아합성촉매를 폐촉매로부터 재생이용하기 위한 시험 생산에서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탄화 촉매 생산의 주체화도 실현하였음.

- 지난 4월에 련합기업소 일꾼들은 공업기술연구소에 성능이 높은 컴퓨터와 수십 종의 실험 용 시약들, 실험기구들을 보장해주어 물 정제용 페이온 교환수지를 소금물과 류산으로 완전재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만들었고 경영활동에서 큰 실리를 얻었음.

4 기타 동향

소금생산 계획 넘쳐 수행 - 온천청년제염소에서(로동신문 2017.07.15.)

- 온천청년제염소의 일꾼들과 제염공들이 소금생산을 힘 있게 내밀어 6월 19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11%로 넘쳐 수행하였음.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의 소금 생산 실적을 올린 것임.

우리 나라에 러시아연방 정부에서 식량 기증(조선중앙통신 2017.07.19.)

- 북한에 러시아연방 정부에서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기증하는 식량이 16일 청진항에 도착하였음. 러시아연방 정부의 식량 지원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일평균 수백만kWh 전력 증산,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 서두수발전소에서(로동신문 2017.07.20.)

-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는 상반기 전력생산 계획을 훨씬 앞당겨 초과완수하였음.
 -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전력공업성의 일꾼들, 기술자들과의 연계 아래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였음. 그리하여 각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실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측정하면서 발전소들 상호 간 출력 분배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보장함으로써 많은 양의 전력을 증산하였음.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로동신문 2017.07.24.)

-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작업 중의 중요한 과업임.
 -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을 힘차게 추진하여야 당면한 전력 수요 보장은 물론 인민경제의 전망적 발전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음.

- 전기절약형경제에로의 전환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새로운 질적비약을 위한 또 하나의 활로가 있음.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도 재자원화가 실현된 에너지절약형의 증기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에너지절약형생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함.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 단위에서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기술 개선을 다그쳐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전력 소비가 큰 생산 공정들을 대담하게 정리, 갱신하며 과대용량설비들을 알맞는 것으로 교체하여야 함. 각종 기계 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개발생산하며 선진적인 전력측정장치들을 도입하여 전력의 이용률을 높여야 함.
 - 건축설계부문에서 명에너지건축기술을 받아들여 모든 건축물들을 전기절약형,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여야 함.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 적극 추진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8.01.)

- 평안남도에서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 이 공사는 평성시 오리동지구의 구배가 급한 2천여m의 구간에서 도로의 선형을 보장하고 폭을 넓히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하는 어려운 대상임. 최고 20여m를 수직으로 깎아 내면서 처리해야 할 토량만 해도 근 20만m³이고 1만 8천여m²의 콘크리트 포장과 8천여m²의 옹벽공사도 해야 함.

메기공장이 일떠선다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8.03.)

- 황해남도에서 메기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배천군에 공장이 건설되면 더운물 원천이 있어 메기 기르기에 유리하며 여기서 한해에 수백 톤의 메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도당위원회에서는 메기공장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군의 능력있는 일꾼들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을 힘 있게 내밀도록 떠밀어주고 있음. 일꾼들은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설에 동원된 배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음.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로동신문 2017.08.04.)

-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8월 3일 식료일용공업성 인민소비품전시장에서 개막되었음.
 - 전시회에는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공장, 기업소, 가내작업반, 이용생산반의 생산자들이 자체의 지방원료와 내부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만든 7,700여종에 8만 5,000여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되었음.

-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의 소비품생산자들이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게 만들어 내놓은 계절옷과 가방, 각종 침구류, 부엌세간, 초물제품, 나무공예품들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음.

제7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개막(조선중앙통신 2017.08.07.)

- 제7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개막되었음.
 - 이번 전시회장에는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의 110여 개 단위에서 출품한 기계 설비와 경공업, 화학, 전기전자제품, 건재, 식료일용 및 의약품, 운전기재 등이 전시되었음.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북한에서 대외무역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술 개진을 적극 다그치고 있으며 경제무역시대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담보와 법률적 기초가 확고히 마련된 것에 대하여 언급되었음.
 - 연설자들은 이번 전시회가 국가 간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경제무역거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로동신문 2017.09.26.)

-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음. 전람회개막식이 2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전람회는 28일까지 진행됨.
-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북한과 수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출품한 전시품들을 돌아보았음.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 진행(로동신문 2017.09.29.)

-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정주시에서 진행되었음. 전시회에는 전국의 농기계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창안자 등이 참가하였음.
 - 능률적인 농기계를 북한의 지형 조건과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제작한 30여 종 220여 점의 농기계들, 부속품, 지구장비들이 전시회장에 출품되었음. 전시회에서는 토양관리기계, 파종 및 이식기계, 비배관리기계, 수확 및 탈곡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부속품, 지구장비들에 대한 심의와 평가, 현장 시험이 진행되었음.
 - 북한의 토양 조건과 사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에서 효율적인 두둑짓는기계, 종합토양관리기계, 종자정선기,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음.